

- 2015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- 구강 증상 및 건강행태 비교

I 조사 개요

■ 기간 : 2015년 3월 ~ 11월

■ 대상

- 학생 :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관내 초등학교 11개교 4학년 학생 914명 (일반 아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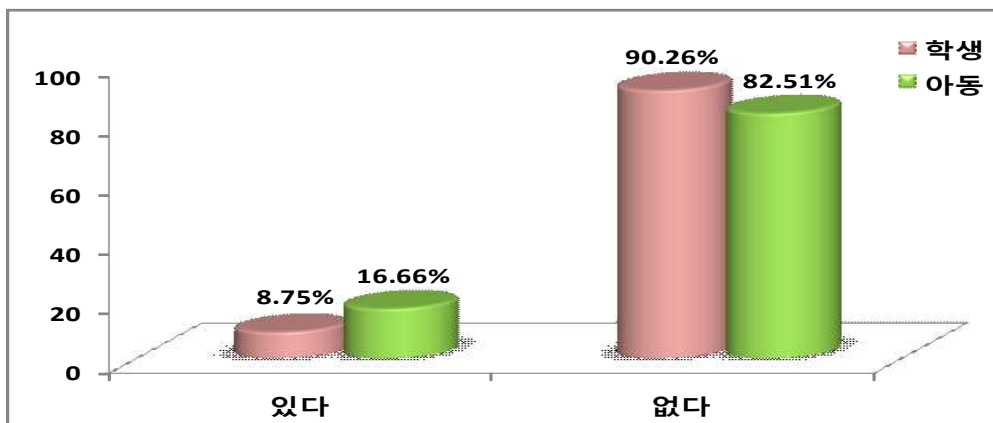
- 아동 :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아동 606명 (취약계층 아동)

■ 방법 :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전 설문조사

II 구강 증상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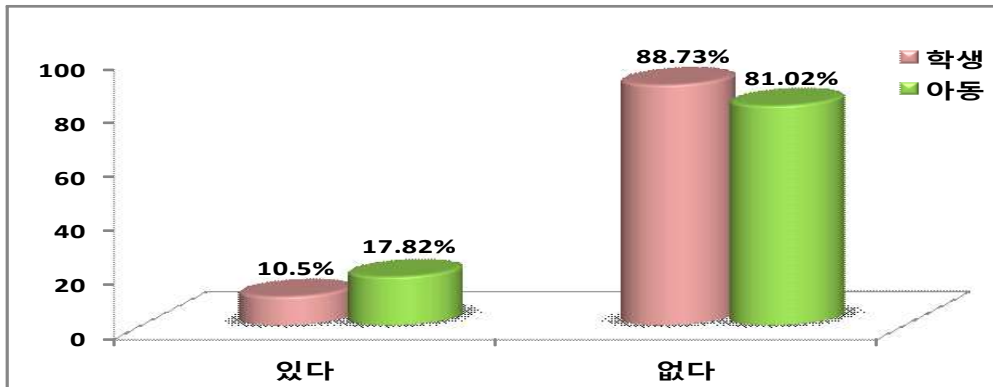
(※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증상에 대해 물음)

1.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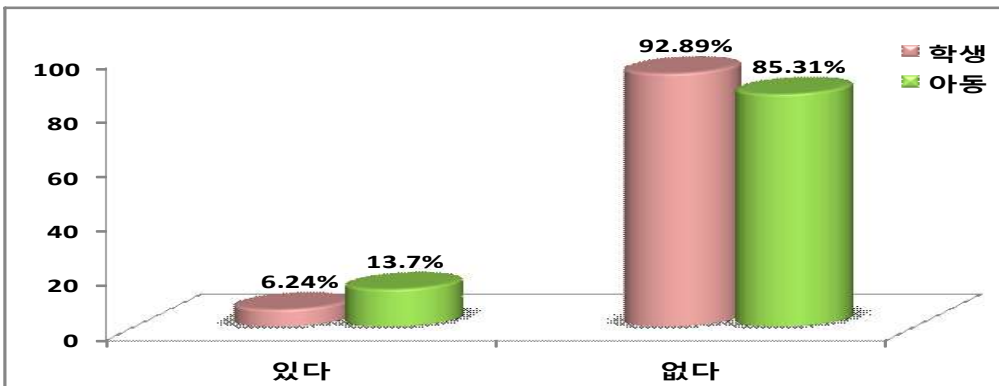
- 아동의 16.66%, 학생의 8.75%가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진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아동이 학생보다 7.91% 높게 나타남.

2.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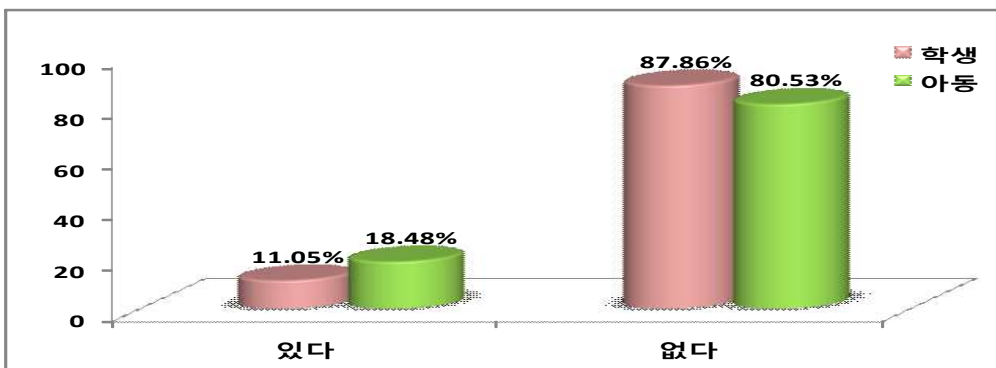
- 아동의 17.82%, 학생의 10.5%가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프다고 답하였고, 아동이 학생보다 7.32% 높게 나타남.

3. 치아가 썩시고 육신거리고 아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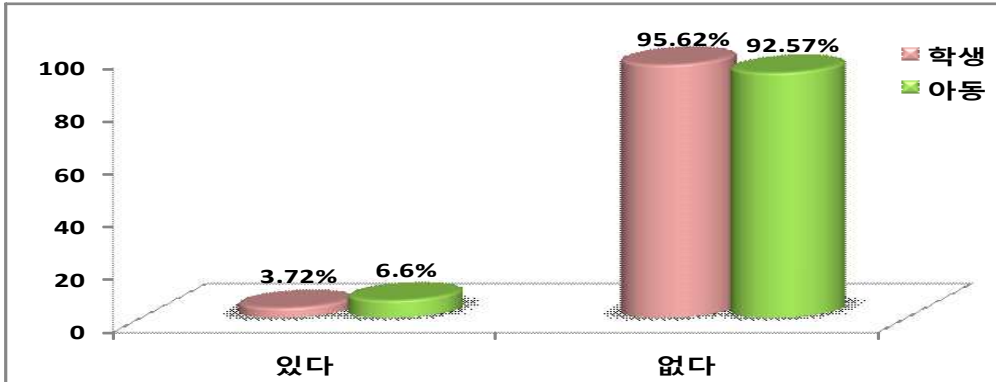
- 아동의 13.7%, 학생의 6.24%가 치아가 썩시고 육신거리고 아프다고 답하였고, 아동이 학생보다 7.46% 높게 나타남.

4.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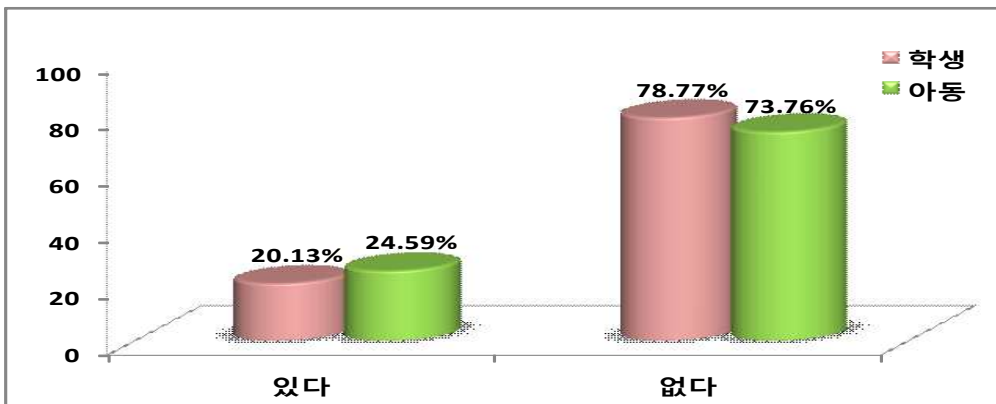
- 아동의 18.48%, 학생의 11.05%가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난다고 답하였고, 아동이 학생보다 7.43% 높게 나타남.

5.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



- 아동의 6.6%, 학생의 3.72%가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프다고 답하였고, 아동이 학생보다 2.88%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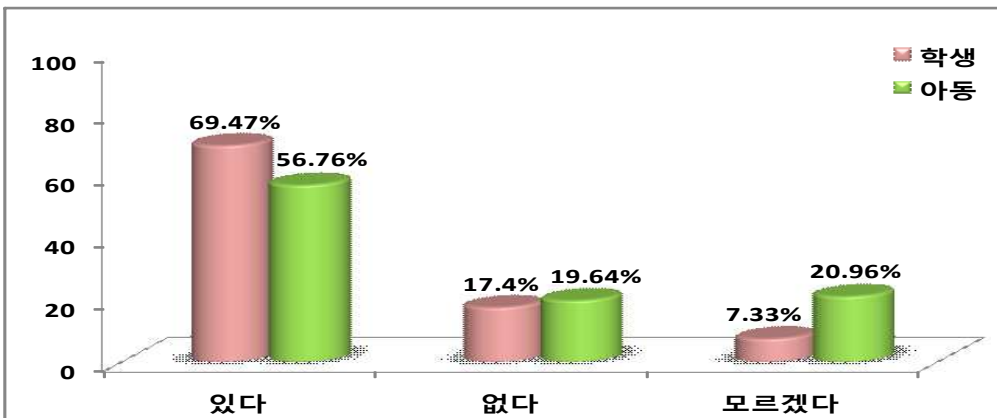
6. 불쾌한 입 냄새가 남



- 아동의 24.59%, 학생의 20.13%가 불쾌한 입 냄새가 난다고 답하였고, 아동이 학생보다 4.46% 높게 나타남.

III 구강건강행태 비교

1. 지난 1년간 치과 병(의)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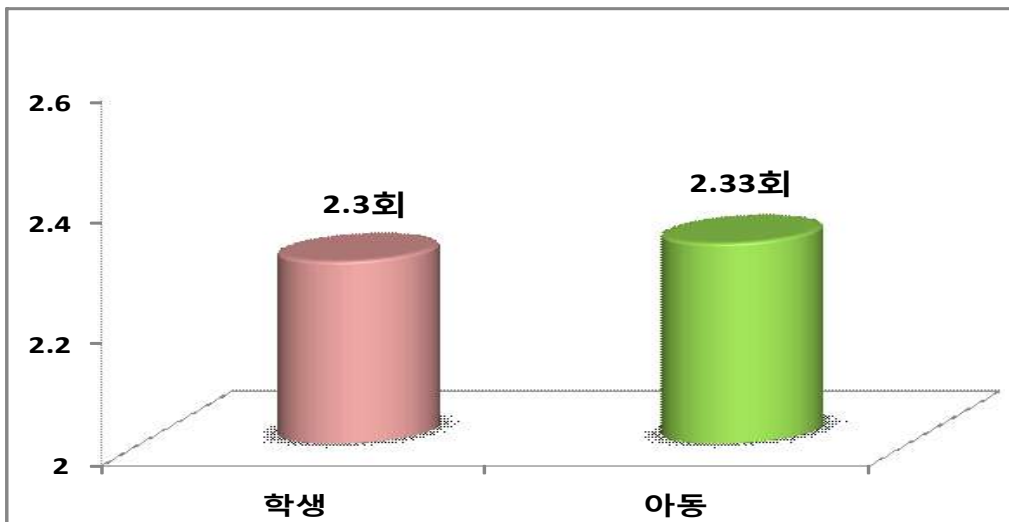
- 아동의 56.76%, 학생의 69.47%가 지난 1년간 치과 병(의)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, 학생이 아동보다 12.71% 높게 나타남.

2.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하시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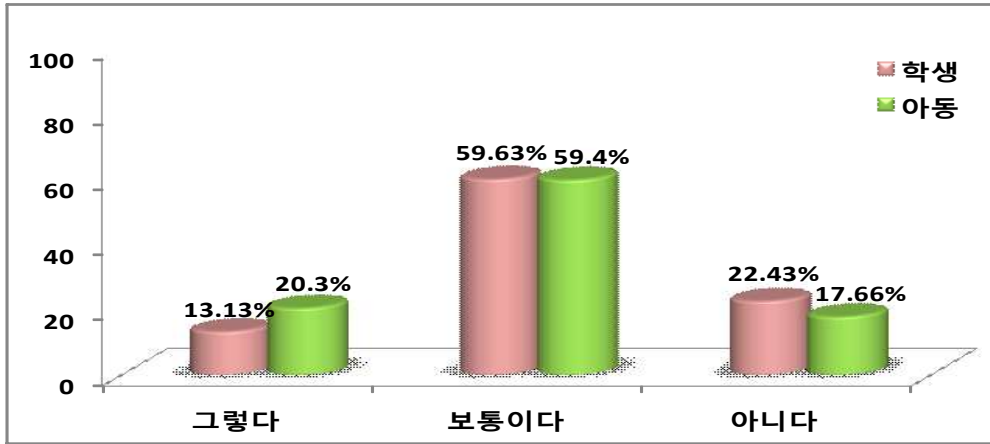
- 아동과 학생 모두 '잠자기 전'이 칫솔질 실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'점심식사 후'는 아동이 15.3%, 학생이 14.2%로 아동이 1.1% 높게 나타남.

3.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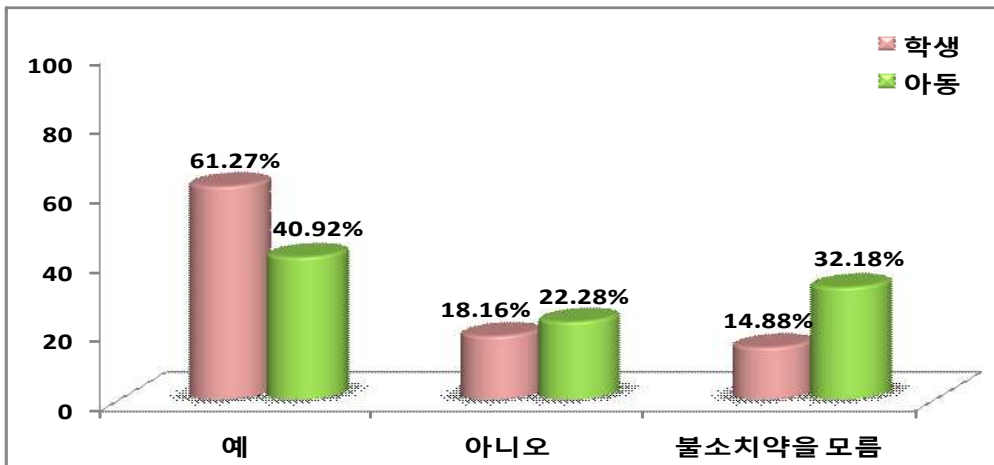
-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아동 2.33회, 학생 2.3회로 아동이 학생보다 0.03회 높게 나타남.

4. 과자 등 단 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?



- 아동의 20.3%, 학생의 13.13%가 우식성 간식(과자 등 단 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)를 즐겨 먹는다고 답하였고, 아동이 학생보다 7.17% 높게 나타남.

5.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?



- 아동의 40.92%, 학생의 61.27%가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다고 답하였고 '불소치약을 모른다'를 아동의 32.18%, 학생의 14.88%가 답하여 아동이 사용 중인 불소치약 함유 인지 여부에서는 20.35% 낮고, 불소 치약 인지 여부는 모른다가 17.3% 높게 나타남.

IV 결론

■ 지난 1년간 경험한 구강 증상에 대한 비교

-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진 경험에 아동의 16.66%, 학생의 8.75%가 '있다'고 답하였으며, 아동이 학생보다 7.91% 높게 나타남
-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 통증 여부에 아동의 17.82%, 학생의 10.5%가 '있다'고 답하였으며, 아동이 학생보다 7.32% 높게 나타남.
- 치아가 썩시고 육신거리고 아프다에 아동의 13.7%, 학생의 6.24%가 '있다'고 답하였으며, 아동이 학생보다 7.46% 높게 나타남.
-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난다에 아동의 18.48%, 학생의 11.05%가 '있다'고 답하였으며, 아동이 학생보다 7.43% 높게 나타남.
-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육신거리며 아프다에 아동의 6.6%, 학생의 3.72%가 '있다'고 답하였으며, 아동이 학생보다 2.88% 높게 나타남.
- 불쾌한 입 냄새가 난다에 아동의 24.59%, 학생의 20.13%가 '있다'고 답하였으며, 아동이 학생보다 4.46% 높게 나타남.

➔ 아동이 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 지난 1년간 경험한 구강증상에서 아동이 학생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■ 구강건강행태 비교

- 지난 1년간 치과 병(의)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다에 아동의 56.76%, 학생의 69.47%가 답하였고, 학생이 아동보다 12.71% 높게 나타남.
- 칫솔질 실천율은 아동과 학생 모두 '잠자기 전'이 가장 높게 답하였으며, '점심식사 후'는 아동이 15.3%, 학생이 14.2%로 아동이 1.1% 높게 나타남.
-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아동 2.33회, 학생 2.3회로 아동이 0.03회 높게 나타남.
- 우식성 간식(과자 등 단 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)섭취에서 아동의 20.3%,

학생의 13.13%가 즐겨 먹는다고 답하였고, 아동이 학생보다 7.17% 높게 나타남.

-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다에 아동의 40.92%, 학생의 61.27%가 답하였고
‘불소치약을 모른다’를 아동의 32.18%, 학생의 14.88%가 답하여
아동이 사용 중인 불소치약 함유 인지 여부에서는 20.35% 낮고, 불소치약 인지
여부는 모른다가 17.3% 높게 나타남.

➔ 1년 이내 치과 병(의)원에 내원 여부와 우식성 간식섭취율, 사용 중인
치약에 불소함유 및 불소치약 함유 인지 여부에서는 학생이 아동보다 높게
나타났으며,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및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아동이
학생보다 높게 나타남.

➔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연령이 모두 같으나,
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연령 분포가 넓어
두 대상자간 비교에 무리가 있음